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사랑 제목: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 13장1-11절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13:1-11)

요한복음 13장은 감동적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좋은 내용들로 가득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랑할만 하다거나, 사랑하고픈 상대가 아닐 경우 이 계명은 단순하지만은 않다.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은 특히 가롯 유다에게 해당한다고 보면 어떨까?

왜냐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천국에 있어서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롯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끝난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가롯유다에게 어울린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가롯유다는 끝나버렸을까? 그는 결정적인 순간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베드로가 더 답답스러운 면이 있다. 유다는 영리해서 그런지 베드로처럼 이해력이 부족해서 자꾸 되문거나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고, 스스로는 예수님보다 더 총명하여서 나름대로 계략을 꾸며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까지 했다.

예수님이 이런 유다에게 황망하게 배신당하실 분은 아니시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다의 속셈을 아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다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도록 코칭하셨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른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연구에 의하면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당시에는 열심당이라는 비밀구국결사대가 있어서 로마에 대적해서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보통 가슴에 비수를 품고 다녔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몇은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하였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초개와 같이 버릴 작정을 하였다.

또 베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번 과감하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기까지 하였다. 반면 유다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다나 베드로 또는 다른 몇몇 제자들은 한결같이 베드로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

오늘 13장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도 이런 제자들간에 팽배하게 깔려 있던 독립에 대한 망상에서 출발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성공할 것을 확신하였고, 마침내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것을 미리 예견하였고, 급기야는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야말로 김칫국을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들이킨 것이다.

예수님은 이들의 독립에 대한 생각이 망상인 것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누누이 여러차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윗왕조에 대한 망상으로 그런 가르침들을 나름대로 해석해 버렸던 것이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신 이유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롭게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의 여러 가지 실수에 대해서 개념치 않으셨다. 나중에 돌이킬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이렇게 섬길 것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본인이 선생이요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말씀과,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 유다에게 어서 가서 네 일을 행하라는 말씀들은 모두 유다를 위한 말씀, 사랑의 말씀이다.

난 네가 하려는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다. 예수님

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를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 그런짓 하면
않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다. 난 네가 배신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다. 내가 모를줄 아느냐? 하고 예수님의 예견능력을 과시하려는것도
아니다.

다만 예수님은 유다가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돌이킬 것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오해와 실수로 따진다면야 베드로가 유다보
다 3배는 더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염려하지 않으셨다. 그
는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달랐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선보다 악을 선택하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다.

오바쟁이 베드로는 자기는 결단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는 수 없이 닭을 예비하셨다. 빨리 회개
하도록 도우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행하라는 명령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다에게 명령하심으로, 그가 다름아닌 스
승님의 허락과 명령으로 스승을 배반한 것이므로 그가 나중에 깨달
은 후에 예수님께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자연스럽게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기 때문이다. 유다의 행
동이 예수님의 일을 크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도움을 베풀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염려대로 악을 선택하였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가 원
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지 않아 자기의 뜻이 좌절된 것을 비판
하고 자살한 것이다.

그는 결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 몰 생각이 아니었다. 다만 군대를
동원하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군대를 물리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군과의 전면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도 이미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

이 크다. 베드로에게 난동을 부릴 것을 요청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칼로 찌르는 척 하다가 귀만 베었는지 모른다. 아무튼 예수님이 주동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싸움에 휘말리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게 유다의 계략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그런 계략을 모를까, 말고의 귀를 치료함으로 간단하게 상황은 종료되고 만다.

이 모든 것이 다윗왕국에 대한 기대감때문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소망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왕국이였다.

다른 생각, 다른 의가 결국에는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었지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괴로워하신 예수님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둬온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측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배신에 대해서 분개한다든지, 어디 두고 보라든지, 저주한다든지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냥 괴로워하셨다.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응하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국사람들이 많이 놀래는 것 같다.

엄청난 사건인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 침착하다. 범인에게 선고될 형량도 너무 적다. 범인에 대해서 분개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저 함께 슬퍼한다. 경찰의 능장 대응에 대해서도, 헬기 조종사가 휴가중일 경우 그 일을 대신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해서도, 경찰의 구명보트가 펑크난 사실에 대해서도 크게 분개해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으면 연일 비난이 쏟아질터인데 노르웨이는 그렇지 않았다. 차분히 대처하고 있다.

범인도, 경찰도, 피해자도 다 같은 한 가족이라는 느낌이다. 서로 이 비극에 대해서 슬퍼한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가 최후에 악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 행동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악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가 보복하려 들고, 내가 대신 심판하려 들고, 내가 그를 제압해서 내 말을 듣도록 하려는 것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야 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계시해석 제목: 계시들과 해석 말씀: 창세기41장1-7절

- 1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즉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 2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 3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 가에 서 있더니
- 4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 5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총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 6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 7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총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창41:1-7)

해석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전인수식, 즉 자신의 생각으로 계시를 해석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기 생각에 대한 교만, 고집, 가치관 등 대부분 자기 생각의 틀, 자기 세계에 갇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잘 듣지 않아서, 너무 잦은 경고 -> 경고를 쉽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하나님은 징조를 사용하신다. 징조에 민감하면 도움이 된다.

-좋지 않은 비슷한 일이 두 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것은 유의미한 사건이다. 그러면 이것은 징조보다 더 분명한 것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생각을 고치고, 태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태도를 고치고, 행동이나 습관에 문제가 있으면 코칭을 받아야 한다.

-징조가 있는 꿈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좋다.

-어떤 집사가 우리편이 아니라는 꿈을 주셨다. 그 이후로는 그 집사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점을 알게 되니까, 돌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로 '질투'가 문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었지만, 아직까지는 태도에 변화가 없다.

-본인으로서 교역자가 편애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본인은 이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낮다는 생각도 있었다.

-본인으로서 담임목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고,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교역자의 실수로 인해서 제3자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함.

-법적이고 도덕적인 실수는 아닐지라도 영적 실수가 분명하다.

-편애는 개인적인 것. 교역자는 만남이 잦을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더 많이 만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화력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같다.

-본인의 믿음은 어쩔지 모르나 다른 교회 출석과, 인터넷을 통한 댓글, 예언 사역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코칭하고 있었다.

-코칭으로 악화된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한 것이 사실.

-여러사람에게 또 본인이 스스로 선린교회의 말씀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이었음. 전도도 왕성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끼쳤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이 노력하였으나, 본인이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는 못한 것 같다.

-정작은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 시험에 들어서 코칭을 그만 둔 격이다.

-나로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는 느낌이었는데 중지되었다.

-본인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것 같다.

-그러나 그리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경우 목회자는 함부로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된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다녔다.'

-그러나 나로서는 보다 깔끔하고 정상적으로 교회를 옮겨서 교회나 본인이 거리끼는 것이 없기를 바란다.

-목적에 대해 분명히 하자. 경제적인 돌파를 원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사랑에 있다. 보다 강력하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의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경제적인 돌파를 이야기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돌파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돌파를 노려야 한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더 앞서게 되고 혼란스러워진다.

-이때 나의 감동은 계속해서 전도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

-리바이벌 페스티벌, 카페 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다의 썰물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밀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조시모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지금 사막을 걷고 있으며, 물을 찾고 있다고.

-너의 곁에서 사람들이 떠날 것이나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붙여줄 것이라는 것.

- 그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
-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라.
- 나는 경제적인 돌파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감이 무엇일까 생각하였다.
-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이라고 하셨다.
- 아무튼 나는 이 일이 매우 가슴아프며 슬픈 일이나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싶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

- 문제가 생기면 떠난다.
- 남겨진 사람들끼리 두 파로 나뉘어 싸운다.
- 교회를 지키려는 자들과 교회를 허물려는 자들로 나뉜다.
- 교회를 지키려는 자들은 남고 교회를 허물려는 자들은 떠난다.
- 이 때는 추수때와 같다.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난다.
- 그러면서 담임목사도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홍역을 앓고 나면 교회는 새로워진다.